



# 대한민국 전력시장의 미래를 그리다

- 산업부·전력거래소, 「2024년 전력시장 개선방향 설명회」 열어
- 올해 변화되는 전력시장 제도 업계 공유 및 전문가 토론 진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26.(금) 서울 코엑스에서 전력 업계,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력시장 개선방향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전력시장 여건과 예상되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24년 전력시장 개선방향과 분야별 주요 추진사항을 시장 참여자에게 소개하고 시장제도 변화에 대한 현장의견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①전력시장 개선방향을 시작으로, ②제주 시범사업, ③「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④「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직접전력거래 확대, ⑤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 등 신규 전력시장 제도에 대한 유관기관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또한,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력시장 전문가 8인이 미래 전력시장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달 제주도에 도입되는 재생e입찰제도,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은 재생e의 시장참여와 신속하고 유연한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제주지역 계통 불안정을 완화할 전망이다. 또한, 재생e전기저장판매사업 등 다양한 직접전력거래 확대 방안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5월)과 분산에너지특별법(6월) 시행은 분산형 전원확대와 신산업 창출에도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세계 최초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6월)을 통해 청정수소 보급확대 및 관련 생태계 구축도 선도해나갈 예정이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지난해는 우리 전력시장이 대외 충격에서 회복해 나가는 한편, 국제 에너지 가격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확보, 안정적 계통운영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과제도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라고 평가하며, “올해는 분산에너지, 전력직접거래 등 다양한 전력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계약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다원화와 함께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전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남혁 (044-203-3910)
	전력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이채원 (044-203-3915)

**붙임****「2024년 전력시장 개선방향 설명회」 개최계획(안)**

- (일시/장소) '24.1.26(금) 10:00~12:30 / 코엑스 402호 컨퍼런스룸
- (목적) '24년도 전력시장 개선 주요 내용에 대한 시장참여자 이해도 제고
  - 행사명 : 「2024년 새해, 전력시장 이렇게 달라진다」
-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 전력거래소
- (참석자 규모) 약 150명
- (진행방식) '24년 전력시장 개선 관련 주제발표(5개) 및 전문가 토론
- 프로그램(안)

시 간		주요내용	진 행
10:00~10:02	2'	개회 및 행사소개	사회자
10:02~10:05	3'	축사	산업부 전력정책관
10:05~11:30	85'	주제발표	
10:05~10:20	15'	❶ 전력시장 개선방향	전력거래소 선도시장팀
10:20~10:40	20'	❷ 제주 시범사업(재생e 입찰제도 등)	전력거래소 실시간시장팀
10:40~11:00	20'	❸ 분산E특별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팀
11:00~11:15	15'	❹ 전기사업법 개정 및 직접전력거래 확대 (재생e전기저장판매사업, 전기차충전사업, 송전제약 PPA 등)	전력거래소 전력신사업팀
11:15~11:30	15'	❺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	전력거래소 수소시장팀
11:30~11:45	15'	Break Time	
11:45~12:25	40'	패널토론 : 향후 전력시장 발전방향	박종배 교수(좌장) 외 8인
12:25~12:30	5'	폐회	사회자

\* 발표별 발표시간(15~20분) 內 주제발표 완료 및 질의응답 진행